



3rd

RaonAtti in Vietnam

05.MAY

Harmony of Korea Festival

한국의 멋 어울림 그리고 모두되기

글/강지혜, 편집/박자영

지난 달 처음 만나게 된 베트남 친구들!
 그 친구들이 초대해 축제 날 우리 팀원들, 일부러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심 시간에 맞춰 축제 장소로 향했는데요.
 생각했던 것 보다 축제의 규모가 상당히 컸고,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참석해 축제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베트남 친구들이었기에, 저희 방문에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었구요.
 우리 팀원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제의 1부, 한국음식 축제! 그렇게 먹고 싶었던 잡채, 떡볶이, 비빔밥에 호떡, 파전까지! 저희 역시 친구들의 환대와,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한국 음식들 덕분에 눈과 입이 즐거웠습니다 ^0^ 하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 더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접할 수는 없었지만, 초고추장이 맛있게 버무려진 비빔밥 한그릇도 몇 번의 손가락질로 금새 동이 나버렸어요 >_<



한국관광
 꼭두각시춤

➤ 축제의 2부는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공연들이었는데요. 개회식에 앞서 예쁜 베트남 여학생들이 최신 유행 하는 한국 가요들에 맞춰 춤을 췄는데 춤을 사랑하는 우리 베트남팀!+_+♥ 하마터면 무대 위로 뛰어올라 갈뻔 했답니다 ㅋㅋㅋ 열렬한 환호와 함께 개회식이 시작되었고, 한국영사관을 포함한 한인교회, 태국영사관 등 귀빈 소개로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있는 베트남의 다섯 개 대학 학생들이 직접 이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탈춤, 꼭두각시춤, 태권도, 뮤지컬, 한국 노래 합창, 광무, 난타,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등 멋스런 한국의 전통을 베트남 대학생들이 두 달여동안 열심히 준비해 다양한 분야의 공연들을 선보여주었습니다.



'난타'공연



태권도시범



부채춤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저희와의 첫 만남 전부터 이 축제만을 위해 연습해온 우리 베트남 친구들의 공연은 누구보다도 멋졌고 눈부셨어요. 조금은 서툰 한국말이지만 모두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찼고, 그 마음이 저희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수많은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주인공이 우리 베트남 친구들이라는 것에 더욱 고마웠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이토록 가까워진 것. 그리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위해 필요한 주체들은 바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가슴 뜨거워진 하루였습니다.

Trường mẫu giá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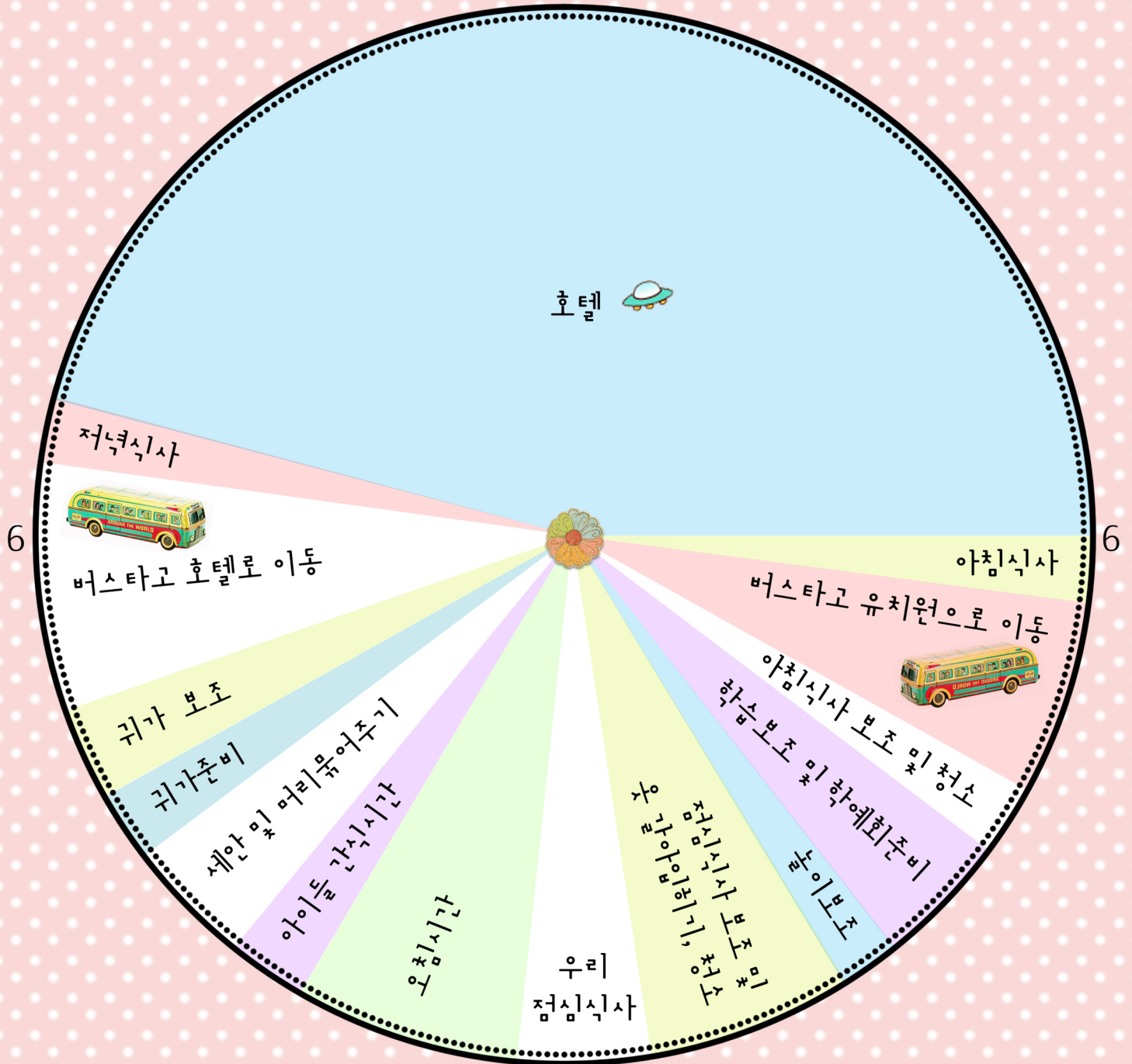
Hồng Ân

의
홍안유치원

하루

글, 편집/박자영

12



12



Giới thiệu Lớp Chồi



★ Lớp Chồi는 풀잎이라는 뜻으로 흥안유치원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4~5살의 아이들이 있는 반입니다. 약 50명에 가까운 아이들과 2분의 선생님께서 함께 지내는 반입니다. 이제 하나씩 베트남어, 동요 등을 배워나가고 있으며 나이에 맞게 매우 활발한 아이들이라서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개구쟁이인 아이들이지만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1★ Minh Khoi (4살)

최고의 개구쟁이로 종종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지만 귀여운 짓도 한 번씩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살임에도 불구하고 또래와 안 놀고 한 살 많은 5살 아이들과 잘 논다-_-;

2★ Tuan Anh (5살)

남자무리의 우두머리로 주변에 아이들이 끊이질 않는다. 혼자서도 척척 잘해서 선생님들께 칭찬도 자주 받으며 빨리빨리 잘 익힌다. 선생님들이 무척이나 좋아할 스타일. Lớp Chôi의 에이스.

3★ Thai Son (5살)

Lớp Chôi반장역할을 하는 Son. 선생님이 뭔가를 시키거나 아이들을 통솔하는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다, 하지만 사고뭉치여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혼난다.

4★ Bao Ngoc (5살)

사진은 웃고 있지 않지만 항상 쾌활하게 웃고 있는 아이. 항상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웃으면서 큰 눈망울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 선생님들을 잘 따르고 아이들과도 잘 어울린다.

5★ Gia Han (5살)

5살이지만 5살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체구를 가진 Han. 말을 할 때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씩 또박또박 말을 하는데 뭔가 설득당하는 느낌이랄까? 그렇지만 알아듣기가 쉬워서 참 고마웠다.

홍안유치원은 우리가 장악한다!?

"Lóp là"를 소개합니다!!



🌸 Cô.Liên

🌸 Cô.Tram

담임선생님이자 두 달간 나의 베트남어 선생님

숙제를 깜빡 잊고 하지 않는 날이면 그날 할 일이 두 배다.



🌸 Quyen Anh 🌸

새싹반의 꽃!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다... 너무 예쁘다.
가끔. 코를 열정적으로
파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스럽다! ^^



🌸 Thu Han & Min Hung 🌸

독순이에 똑돌이다.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을
피하는 반면 Thu Han은
Co.Tram을 졸졸 따라다니며
애교를 부린다.
그래서 그런지 Co.Tram은
유독 Thu Han을 좋아한다.
Min Hung은
걸는 모습이 나랑 똑같다.

항상 밥을 두 그릇씩
매일매일 먹고 배부른듯한
걸음걸이는 배꼽을 잡는다.



🌸 Minh & Min Loc 🌸

Lóp là의 커플이다!
Minh은 애교가 정말 많다.
나나 선생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보기만 하면 안긴다.
하지만 너무 안겨서
문제이기도 하다.
Min Loc은 Minh과
다르게 말이 없고
뒤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
이 둘은극과 극이 만나서
완벽을 이루었다.(?)



🌸 Quan Tien 🌸

Co.Liên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다.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뒤떨어져
혼자서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지만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더 챙겨주고
더 아껴주고
더 혼내준다.



이제 거의 전부가 졸업해서 다시보긴 힘들겠지만 사진만 찍으려하면 달려드는 아이들 때문에
현명한명 다 기억할 수 있어서 고맙다.
먼 훗날 아이들에게는 내가 한국에서 온 아저씨로 기억 깊숙한 곳에 자리잡겠지!

Trường mẫu giáo Hồng Ân Tốt nghiệp



졸업식

5월 26일은 홍안유치원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Lop La의 졸업식을 겸한 학예회가 있는 날로 학예회는 홍안유치원의 모든 원생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로 라온아띠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라온아띠의 무대도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기간 동안 우리 라온아띠도 맹연습을 했습니다.

오전은 리허설을 하였고, 오후는 본격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동안 잘 할 수 있을까 떨려왔습니다.

그런 떨림이 지속되는데 준비를 마치고 무대로 갔는데 유치원이 초만원이었습니다.

홍안유치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분들도 오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졸업식을 겸한 학예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연습했던 것처럼 모두들 잘 마치고 드디어 라온아띠의 차례가 왔습니다.

라온아띠의 무대는 태권무와 댄스.

태권무를 할 때는 다들 생소해서 그런지 다들 신기하게 보는 느낌이었는데 뒤이어 댄스로 이어지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멋있는 댄스무대를 보여준 우리 베트남팀 여자 단원들에게 다시 한 번 멋있었고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인 패션쇼를 끝으로 Lop La의 졸업식 및 각 반의 승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라온아띠가 찍어준 졸업사진이 붙어있는 졸업장이 수여되고, 한 반씩 올라가는 아이들에게는 가방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졸업을 하는 Lop La의 아이들 얼굴을 보니 그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 많이 아쉬워보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모두들 돌아가는데 왠지 다시 내일 볼 것만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렇게 라온아띠도 많이 아쉬워하면서 졸업식 겸 학예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Biển Tiên Dông

Suối Tiên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어느 덧 시간은 훌쩍 흘러 홍안유치원에서의 마지막 활동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모두가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소풍이었는데 소풍장소는 홍안유치원으로 출퇴근하면서 항상 바라만 보던 곳이었던 'Suối Tiên'!

호치민에서 유명한 종합테마파크로 라온아띠도 함께 달려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누구하나 망설일 것 없이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워터파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베트남이기에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치원에서도 소풍을 와서 그런지 워터파크 입구부터 아이들의 즐거운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절로 우리 라온아띠도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수영장으로 입수
그렇게 모두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점심도 먹고 햇살이 따가워지는 오후시간이 되자 아이들을 데리고 낮잠을 자면서 모두들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돌고래쇼를 보러 갔는데 흥미만점, 스릴만점이었습니다.
처음에 물개쇼가 있었는데 물개가 공을 던지고 박수치는 것에 한 번 즐거웠고 뒤이어 본격적인 돌고래쇼가 이어졌는데 돌고래들이 물 위를 서서 달리고, 점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즐거워하고 놀라는 것을 보면서 시간가는 줄을 모를 정도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입구에 다시 모였는데 지금까지 물렸는데 지난 두 달 간 동고동락했던 아이들 및 선생님들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많이 아쉬웠습니다.
돌아서면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밝힐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버스에서도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더욱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라온아띠는 지난 두 달 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글/구재현, 편집/박지영

05.MAY